

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개인과 사회에 많은 변화를 내포하는데, 인간은 고령화 될수록 역할상실, 신체 및 건강의 퇴화 등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우울과 불안을 겪은 시절보다 흔히 느끼게 된다. 이런 노인들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 보살피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는 가족일 것이다. 현재까지 대상포진의 통증과 환자의 연령, 발생위치, 합병증, 동반질환, 치료 시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통증과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 및 가족기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본원 피부과에 내원한 대상포진 환자 133명 중 우울 증상의 평가를 위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불안 증상의 평가를 위한 Beck Anxiety Inventory (BAI)와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 (FACES-III) 설문지 조사에 동의하고 통증 정도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9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통증의 정도 및 통증 소실 기간과 우울, 불안, 가족기능과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PO-13

#### 대상포진 상처치유지연에 epidermal growth factor serum의 적용 10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윤희, 오윤석, 최용호**

만성 백혈병 등의 악성종양 또는 방사선치료 등으로 면역부전 상태에 처한 환자에서 발생한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병변이 광범위하고 상처치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60세 여자로서 내원 4일 전부터 오른쪽 흉부와 등에 띠 모양으로 심한 통증을 동반한 다수의 홍반성 수포와 구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2년 전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 시행받고 1년 후 전이가 발견되어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아왔다. 대상포진 진단 하에 항바이러스제 및 항생제 정맥주사, 병변 소독 등으로 치료한 후 퇴원하였으나, 1개월 후에도 병변의 지속적인 삼출과 광범위한 미란 및 궤양 소견을 보였다. EGF serum을 1일 1회 도포하고 5분간 공기 중에 건조시킨 후 polyurethane foam (메디폼®)으로 밀폐하였고 2일 간격으로 교체하였다. EGF serum 사용 2주 후에 병변의 삼출은 거의 멈추었고 재상피화를 보였으며 넓이도 감소하였다. 14주 후에는 상처가 완전 치유되었다. 저자들은 면역 억제된 상태의 대상포진 환자에서 상처치유 지연을 EGF serum으로 회복하였고 이러한 시도가 상처치유가 지연되는 면역 억제 환자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보고한다.

### PO-14

#### The hair growth promoting effects of ADSC

시립보라매병원 피부과, <sup>1</sup>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sup>2</sup>리더스 피부과 Leaders Clinic, <sup>3</sup>성균관대의대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sup>4</sup>프로스테믹스 연구소 Division of Stem cell Research Prostemics Research Institute

**원종현, 진선필, 조소연, 김규한<sup>1</sup>, 유현경<sup>1</sup>, 강용정<sup>1</sup>, 성미영<sup>1</sup>, 정진호<sup>1</sup>, 박병순<sup>2</sup>, 김원석<sup>3</sup>, 성종혁<sup>4</sup>**

Mesenchymal stem cells within the stromal-vascular fraction of subcutaneous adipose tissue, adipose-derived stem cells (ADSCs), display multi-lineage developmental plasticity and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bone marrow-derived stem cells (BM-MSCs). In addition, ADSCs are known to produce diverse cytokine secreting properties and to have beneficial paracrine effects on surrounding cells or tissue. To determine whether these paracrine effects of ADSC could promote hair growth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DSC-CM (conditioned media) on hair growths. The conditioned medium of ADSCs (ADSC-CM) was harvested and evaluated for the stimulatory effects on hair growth. ADSC-CM increased the proliferation of DPC and HaCaT cells. In a cell cycle analysis, ADSC-CM reduced the G1 arrest and prolonged the synthesis and mitosis phase in DPC. We observed ADSC-CM induced anagen phase and promoted hair growth in C3H mice model and enhanced the elongation of hair shaft in ex vivo human organ cultur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DSCs may promote hair growth by increasing the proliferation of dermal papilla cells and possibly epithelial cells through modulation of cell cycles, and activating of anagen phase in hair cycles. Therefore, the rational manipulation of ADSC might be a promising tool for the treatment of hair loss diseases.

### PO-15

#### 초음파 땀샘흡입술을 이용한 액취증 및 다한증 치료 62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sup>1</sup>로제피부과

**박영도, 강민철, 정기백<sup>1</sup>, 김창덕<sup>1</sup>, 이규석**

액취증 (Osmidrosis)는 액와부 땀샘의 이상으로 독특한 냄새를 풍겨 주위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개인적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취한증, 겨드랑내 혹은 암내라고 불린다. 사춘기 이후에 아포크린선이 발달하면서 시작되며, 땀이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어 지방산이 생